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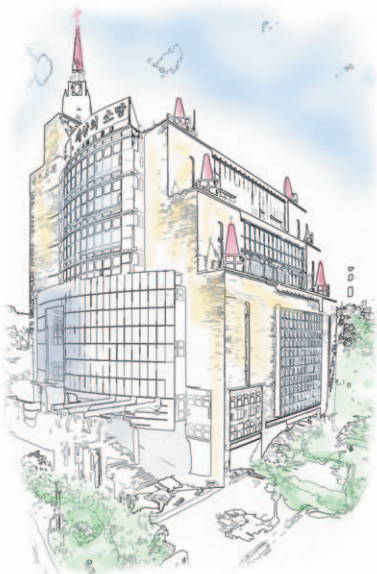
##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 (시편 112:1-13)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반사될 것입니다.**



시편 112편의 주제는 시편 111편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111편은 지혜 문서들에서 자주 발견되는 참되고 경건한 지혜에 대한 묘사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도다”(시 111:10).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그의 교훈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사람의 성품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1, 112편은 여러 면에서 짝을 이룹니다. 시의 길이가 같고, 히브리어 알파벳순으로 시작되는 각 절을 22줄로 갖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111편은 여호와의 전능하심, 영광, 의를 정직한 자의 모임과 회중에서 찬양했고, 112편은 정직한 자의 의, 선함, 복이 크게 묘사되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속성을, 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이들의 일과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반사될 것입니다.

#### 1. 큰 복

본 시는 복에 대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복은 약속 있는 축복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1절). 그리고 경건한 자의 특별한 복이 2-9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전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의 경건은 3가지를 포함합니다.

##### 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깊은 존경심,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본 시에서 복 있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을 신중하게 대한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삼고, 모든 계산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삼으며, 마지막에 그 분께로 돌아옵니다.

##### ② 그는 하나님께 복종 한다.

크시고 전능하신 성령의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 ③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또한 즐거워하고, 복종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또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하며 그의 계명을 기뻐해야 합니다.

#### 2.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복

2-9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쁘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외적인 것을 생각할까? 아니면 내적인 것을 생각할까? 본 시에서는 이 두 개념이 나란히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가견적 복을,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면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 ①정직한 자가 강성해짐
- ②의로운 자가 부해짐
- ③자비로운 자가 빛을 발함(4절)
- ④관용과 정의로 행하는 자는 잘됨(5절)
- ⑤믿음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아니함(6-8절)
- ⑥구제하는 자는 영광을 받음(9절)

#### 3. 악한 자의 삶

9절이 경건한 자의 삶을 종합한 말씀이라면, 10절은 악한 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은 하나님께 인간의 응답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112편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의 말로가 얼마나 비통한지를 보여줍니다.

악인은 의인의 번영을 보고 이를 감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런 일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자기만 족을 누리며 의인을 무시하고 사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이를 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울며 이를 가는 곳’(마 8:12)으로 설명합니다. 불신자들은 그 날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을 해치고, 의인을 제거하려는 악인이 소멸되는 역사의 심판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2009년 홍해작전

6월6일(토) ~ 6월 25일(목) 새벽 5시 본당에서  
강사: 박노철 목사(구리지구촌교회), 6월6일(토)~15일(월)  
이종운 목사, 6월16(화)~25일(목)

2009년 홍해작전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

홍해작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합심하여 조국을 위하여, 민족교회와 서울교회를 위하여, 개인과 가정의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극복하는 "회개운동이며 말씀과 기도작전"이다.

이번 홍해작전 주제는 총회주제에 따라 "섬겨야 합니다"로, 표어는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일하고 소망으로 전도하자!" 로 정해 나라와 민족, 전 세계 교회를 섬기며 전도에 힘쓰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한다.

한편 이번 홍해작전은 두 분의 강사가 새벽제단을 인도한다.

6월6일(토)~15일(월)까지 구리 지구촌교회를 섬기는 박노철 목사가, 6월16(화)~25일(목)까지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가 강사로 선다.

박노철 목사는 캐나다 요크 대학,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2007년 청지기수련회 강사로 새벽에 여섯 차례 말씀을 선포한 바 있다.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모든 기도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홍해를 가르며 은혜 받기를 기도한다.

## 장로교회 연합과 일치성을 위한

### 6월21일(주) - 장로교 기도의 날

올해는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이 탄생한 지 500년이 되는 해로 전 세계 장로교회들이 다양한 행사로 이를 기념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도 이에 못지 않은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한장총)는 분열된 한국 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장로교의 날(7월 10일)로 정하고 장

중체육관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장로교 기도의 날'을 갖기로 하였다. '장로교 기도의 날'은 6월 21일 주일 하루 동안 지키며, 장로교 정체성 회복과 2012년 한국 장로교 100주년, 2015년 한국 광복 70주년을 위해 기도한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기도 바란다.

## 장신대-협력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5월22일(금) 장신대 / 한경직 목사 기념관에서 드려



지난 5월 22일,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 목사 기념관(예배당)에서 서울교회 성도들과 장신대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신대-협력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는 예배'를 드렸다.

이날 이종운 목사는 설교를 통해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나라 5가지를 들어 설교하며 참여한 모든 이들, 특히 신학생들에게 강한 소명의식과 도전을 주었다.

또한 예배 후 특별순서를 통해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을 모은 헌금 일역원을 전달하였다.

장신대를 통해 대한민국과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주의 종들이 더욱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육사 세례식

5월27일(수) 오후7시 - 육사교회당에서

2009년 육사 세례식이 5월27일(수) 오후7시 육사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 이종운 목사는 참여한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식을 집례한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후 4시30분에 한다.

우리교회는 올해도 간호사관학교를 필두로 각군 사관학교 졸업감사예배를 주관했고 해마다 육사 신입생 세례식을 집례하고 있다.

## 제10대 장로 피택되다



5월17일(주) 공동의회에서 오광환 집사가 제10대 장로로 피택되었다.

피택된 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제42조 장로의 임직 조

항- '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해야 하며 지교회에 임직한다'에 의거하여 5월 23일(토)부터 총 16주 동안 부부동반으로 교육이 시작 되었다.

## 호산나대학 22명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 취득



지난 5월6일 외부요양보호사 양성 기관과 연계하여 전국 지적·자폐성 장애인 최초로 호산나대학 재학생 22명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호산나대학은 2006년부터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노인케어전문인 양성을 위해 노인케어학과를 신설,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 첫 월급 하나님께...



호산나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우 학생이 조기 취업 후 지난 4월25일 받은 첫 월급을 아가페타운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쳤다.

이승우 학생은 2009년 3월 25일 하상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하랑카페에 취업하여 받은 첫 월급이 비록 적지만 호산나 학교가 이전할 아가페타운의 건축을 위해 헌금을 드린다고 했다.



한국시민양성

#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됩니다



김광신 장로 (신앙강좌2부 부장)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유능한 이유는 유치원 교육부터 착실하게 공부해서 기초를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초등학문을 배우지 않고 고등학문에 접하려면 쉬운 것 같아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왜 죄인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배우고 알아가면서 성숙한 경지까지 올라가는 법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교회 교회학교에서는 모든 성도의 수준에 맞는 교과목을 설정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강좌2부에서는 새가족부에서 기초를 마친 성도

**인간은 왜 죄인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배우고 알아가면서  
성숙한 경지까지  
올라가는 법입니다.**

들에게 더 알기 쉽고, 그러나 깊이 있게 신앙적 접근을 통하여 교육하기 위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년 과정으로 1학기에는 인간론을 공부하고, 2학기에는 구원론을 커리큘럼으로 하여 김재진 목사님께서 자세하고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신앙강좌2부를 수료하면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매주일 12시 40분 701호실에서 김재진 목사님 강의로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는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료자의 간증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는 신앙강좌2부를 수료함으로써 비로소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졌고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강좌2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고 지금은 100여 명이 넘는 교인의 교육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김은태 집사 (신앙강좌1부 차장)

주일 2부 예배 후 식당을 지나 9층으로 열심히 걸어서 혹은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데 이분들은 904호에서 12시 40분부터 시작하는 신앙강좌를 듣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찬양과 기도 후 김영한 목사님의 준비된 주옥같은 성경공부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자주 읽는 성경이요, 기독교 기본교리와 지식이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들을수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성경의 놀라운 권위와 내용에 감탄하여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 지식을 더욱 더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데 신앙강좌를 듣는 것만큼의 기회가 없을 정도라고 모두들 입을 모읍니다.

30대 젊은 성도들부터 60대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두루 퍼진 연령의 성도들에게 쉬우면서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진지하게 듣는 모습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성경 전체를 조망하여, 숨겨진 뜻을 자세하고도 친근한 용어로 풀어내는 목

사님의 강의를 들노라면 그 앞에선 모두가 청년 학생이 될 뿐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필기하고, 어떤 분은 연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넓은 교실은 조용하면서도 귀한 진리를 깨달을 때 받는 감동이 물결치며 배우는 기쁨과 고마움이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찹니다.

1시 20분까지 진행되는 본 강좌에서 6월까지의 성경론으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성경지식과 신앙을 바로 갖추게 해주며, 2학기 7월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 사역을 깊이 공부하는 기독교론을 강의합니다.

올해 20여명으로 시작한 신앙강좌1부는 그동안 꾸준히 늘어나서 현재는 60여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1년 2학기제로 학기말마다 수료증을 발급하며 2년을 마치면 평신도 신학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배 후 성경 공부할 곳을 찾고 있거나, 새가족부 수료 후 다른 곳에서의 후속 공부를 원하시는 분, 또는 이 시간 봉사 할 기회를 찾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 강좌를 잘 활용하면 개인 신앙에 페달을 밟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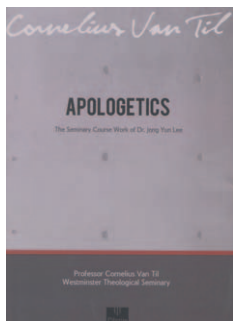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의 지식을  
더욱 더 체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쉽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 ■ 신 간 안 내 ■

## 변증학(Apologetics) 책 출판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 과목 수강 시 제출했던 학기 논문과 시험답안지를 묶어 영문 그대로 출판

이종윤 목사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재학시절 변증학 교수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 과목 수강 시 제출했던 학기 논문과 시험답안지를 묶어 영문 그대로 출판했다.



40년 전 작은 과제가이었지만 반틸 교수께서 극찬을 해주신 친필 서명이 있어 논문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저자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칼빈은 불후의 명저 기독교 강요를 그의 나이 26세 때 저술한 것에 용기를 얻어 신학입문을 하는 학도들을 위해 이 책을 펴낸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신국판 114면으로 필그림 출판사가 펴냈다.

고(故)이옥녀 권사님을 그리며

#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故) 이옥녀 권사님,

권사님께서는 예비된 저 강 언덕, 아름다운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고통의 싸움은 모두 끝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이 편찮으신 모습으로 미국에 가기 위해 서울교회와 우리들 곁을 떠나가실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힘한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 주님 한 분 만으로만 만족하신 우리 권사님!

오늘 이 위로예배로 주님 품에 안기신 권사님을 길이 길이 기억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시어 흰옷 입으시고 황금길을 거니시며 금 거문고에 맞추어 새 노래를 부르실 권사님, 세상 고생 모두 잊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지혜로운 판단과 결단을 내리신 권사님, 그 작은 체구에서 어찌 그리 용감한 행동이 나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사랑하신 이종윤 목사님을 위해 불의와 담대히 싸우시며 서울교회의 초석을 놓으신 권사님은 정말 위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그 모든 일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겸손과 은유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시므로 성도의 모범이 되셨고, 믿음의 동지들에게 존경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권사님, 이제 우리들은 먼저 가신 권사님이 계신 시온성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향기로 무지개다리를 놓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의 멍에를 벗어 버린 후 영원토록 거할 천국에서 권사님을 만나 모두 함께 기뻐 찬송 부를 날을 소망합니다.

2009년 5월 20일

고(故) 이옥녀 권사님 전에서  
백영희 권사



천국시민양성

# 우리의 연수가 칠 십이요, 강건하면 팔 십이라



원복순 권사(2교구)

80세를 지나 90세가 되어가는 이 노년의 뜰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경로대학을 수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프로그램과 훌륭한 강사진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고 지혜로운 만남을 통하여 삶의 질과 모양을 변화시키며 주님이 주시는 창조적 꿈을 붙들고 소망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복된 경로대학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고 했던가요. 이제는 매말랐던 우리들을 깊은 기도 속에서, 있어야 할 곳을 떠났고 지켜야 할 시간을 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어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쳐 질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시며,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어 남은 여생도 영적으로 아름답게 가꾸며 사는 경로대학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로대학을 수료하면서 저희들이 과연 예수님 앞

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인지, 또 믿음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덕을 끼치는 종들이인지 뒤돌아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도로 살고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오고 오는 후손들을 얼마나 바라 볼 수 있을까 목소리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종윤 목사님을 뵈을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때때로 들곤 합니다.

18년 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 주님께서 서울교회를 기름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사랑의 마을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아가페 타운이 빠른 진행으로 마무리 되어 우리의 아들딸들이 그 곳에서 꿈을 꾸며 비전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하며 정성을 다하여 맡겠습니다.

겉 사람은 후회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들! 남은 여생 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과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며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경로대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베드로 선교회 비회 전도회 농촌 및 군부대 전도

5월 30일(토) 인제군 서흥교회에서

베드로 선교회와 비회 전도회는 연합으로 농촌 및 군부대 전도에 나선다. 농촌전도 시 한방의료 및 이미용 봉사를 겸한 말씀 전도를 펼칠 예정이다. 연합전도대는 5월30일(토) 오전 7시30분 교회를 출발하여 강원도 인제군 서흥교회(담임 김광근 목사)에서 전도할 예정이다.

## 3000명 전도운동 태신자 명단

금주 초청 편지 발송돼

하영수(김숙희 하경수 하명지 하은하) 박찬성(김철희 전성애) 한홍연(천승현) 한경신(한윤선 한형숙) 조순엽(박일배 박진희 안정숙 전주석) 정문곤(김창엽) 이인숙(이창훈 이현정) 이강진(박기훈 오병익) 유혁근(유병덕 윤여일 정한성 황석민 황석환) 송미령(송강석 최순이) 박인자(김영순 김형국 박병배 이추욱) 박상희(박상은 양우곤) 마종량(고서윤 김은정) 김해영(김지호) 김명옥(배미영) 다음주 계속

## 제5기 설교사역도교 교육 시작

5월24일(주일) 오후 3시 30분 - 609호

제5기 설교사역도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돼 도교사역의 의의, 도교의 특권과 의무, 도교의 승리의 모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교, 설교사역 도교의 중요성과 도교의 실제 등을 배우게 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서울교회 20년사 편찬위원회 구성

서울교회 20년사 편찬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20년사 편찬위원으로는 지도-서명철 목사, 위원장-하인선 장로, 편집위원-신동기, 허숙,윤영남 권사, 서춘식, 유대서, 김민철, 유은경 집사, 나소정 선생이 임명되었다. 20년사는 2010년에 발간될 예정이다.

## 2-20다락방 신설

우리교회는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2차 아파트를 중심으로 2-20 다락방을 신설하였다.(다락방 장 이현미 집사, 부다락방장 김수현6 성도)

## 특별찬양

오늘 저녁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우리교회의 미리암 여성선교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된다. '문화의 기독교화'라는 우리교회의 비전 중 하나를 실천하는 방안의 하나로 창단된 이 여성합창단은 소수 정예 선교 합창단으로 육성되어 왔다.

그동안 기독교 교도소 기공식,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예배, 우리 교단의 여러 행사에 초청되어 문화적 기여와 함께 교회의 사명인 선교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오늘저녁에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H. Baradlough)' 외에 3곡으로 찬양 드린다. 지휘에 김정희 권사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반주에 강은경(한양대 학강사) 선생이 수고 한다.

## 제11회 화요정오음악회

5월 26일(화) 정오- 박은혜 오르간 연주회

제11회 화요정오음악회 마지막 순서로 박은혜 선생의 오르간 연주회가 열린다. 관람은 본당 3층에서 하기 바란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7일(수) 육사세례식에서 설교와 성례식을 집례한다. 28일(목) 한장총 총무회의를 소집하고, 29일(금) Theological Journal of KIMCHI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수상 : (1교구)최갈현 성도 5/19일 발명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여

■ 이영조 집사(음악감독, 국립예술영재원 원장)는 독일 Hanover에서 열리는 국제예술영재교육포럼에 주제발표 강연 차 20일 출국

■ 특남: 9교구 배효복 성도 김경숙 성도 가정

■ 주간식당봉사: 안드레션교회(5.24) 베드로선교회(5.31)

■ 금주의 식사 : 김재근 집사 · 안분선권사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말씀과 기도로 흥해를 가르는 흥해자전 위하여
3. 로잔국제지도자대회, 칼빈탄생500주년기념대회, 장로교의 날 행사준비 위하여
4.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5. 세계적 경제 대란을 잠재우고 북한의 전쟁위협 사라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